

휠체어 장애인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전주시설공단, 9월 9~13일 효자공원 묘지·전주시내 추모시설 왕복 이용... 내달 4일까지 사전 신청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교통약자 이용객들의 성묘 지원에 나선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이차콜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휠체어 이동 이차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 장애인 1명을 동반한 최대 4명의 인원을 태우고 효자공원 묘지와 전주시내 추모시설을 운행하는 서비스로 왕복 이용 요금은 4000원이다.

다음 달 4일까지 사전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안전하고 친절한 성묘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차콜 전 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차콜' 특장 택시

하고, 이차콜 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친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특장 콜택시 58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입차 택시 25대, 순환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특장 콜택시를 5대 증차하고, 노후 차량 4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박만희 교통약자지원부장은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작당 달빛 버스킹' 야간공연

전주시, 31일~12월 말 매주 금·토 문화공관장 작당서 진행

전주남부시장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이 전주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문화공관장 작당 야외마당(모두의 정원)에서 상설 버스킹 공연인 '작당 달빛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상설 버스킹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미술, 별론쇼 등), 관객 참여 이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클래식 연주와 퓨전 음악, 어쿠스틱 밴드 등의 잔잔하고 감미로운 공연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 등을 고려한 대중가요와 방송댄스, 마술쇼, 버블쇼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남부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부시장 영수증 이벤트 등 시장과 연계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은 "버스킹 공연이 문화공관장 작당을 찾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먹거리 위주로 구성된 야시장 콘텐츠에 문화·예술 요소를 가미해 전통과 문화를 모두 담은 문화공관장 작당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작당 달빛 버스킹'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농협목우촌·제니엘·한우물·케이티에스푸드 등 4개 업체 참여



전주시는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5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주)농협목우촌(햄, 소시지 제조업체) △(주)제니엘(도시락 제조업체) △(주)한우물(냉동볶음밥 제조업체) △(주)케이티에스푸드(돈육 제조업체) 등 4개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구인 업체들은 사전에 모집한 입사지원자의 현장 면접을 통해 총 25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본 행사에 앞서 직업상담사를 통해 구인·구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구체적으로 직업상담사들은 참여기업의 급여 및 근무 시간과 통근버스 노선 등 구인 조건에 맞춰 구직자 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진행해 면접 대상자가 해당 업체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해마다 7회 이상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연말까지 2회 이상 더 개최해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혜숙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장년층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063-281-2812)로 구인 신청을 하면 맞춤 알선과 현장 면접을 통해 인력 채용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민·관 합동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

전주시는 29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10여 명의 시청 직원과 30여 명의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회원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지역 청소취약지 130여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반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각 조별로 배정된 동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정리했다.

특히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쓰레기봉투 등에 대해서는 직접 봉투를 열고 버려진 영수증 등을 활용해 불법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시는 이날 단속 중 경미한 분리배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계도 조치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 적발 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과 협조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완산시 민경찰연합회와 취약지 청소 및 순찰·계도, 불법투기 합동 단속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매일 한 차례씩 현재까지 총 21회에 걸쳐 불법투기 합동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총 4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약 71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316건의 경미한 적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복지국장은 "전주시는 앞으로 완산 시민경찰연합회 및 시민들과 협조해 지역 사회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시민의식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삼천1동 아너센터럴신원경로당 개소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아너센터럴신원경로당(회장 조연)은 주위 어르신들과 내외빈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개소식을 진행했다.

아너센터럴신원경로당은 신규 아파트인 만큼 최신식으로 완공된 컴퓨터 경로당이며, 경로당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자발적인 봉사로 심시일반 같은 마음으로 음식부터 여러 가지 준비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경로당 조연 회장은 "우리 나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삼천1동 김성수 동장은 "아너센터럴신원경로당 개소식을 축하드리며 노인인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어르신들 휴식 공간 및 건강, 복지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 아너센터럴신원경로당은 주위 어르신들과 내외빈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